

공존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2025
SPRING
제71호



한국살이 리얼톡
제1호 외국인 요양보호사
하응옥 째

출입국 ON AIR
공공형 계절근로 현장 방문
안동와룡농협

출입국 탐구생활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이종철 주무관의 하루

출입국 in FOCUS
전자입국신고 제도
(e-Arrival Card)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공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햇살과 향긋한 꽃내음이 반가운 봄입니다. 긴 겨울을 지나 새 계절의 활력이 독자 여러분의 일상에도 스며들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본부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인력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이민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탑티어 비자를 신설하고, 지역과 산업 현장의 수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광역형 비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입국과 체류 분야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편의성과 효율성이 한층 개선되었습니다. 전자입국신고제를 통해 외국인이 입국 전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국심사 대기 시간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이고 간소한 입국 절차를 구현했습니다. 또한,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은 체류외국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더 편리하고 안정적인 국내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본부는 체류외국인의 불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민 확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따사로운 봄별 아래 움트는 새싹처럼, 활력을 더해가는 이민정책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가능성을 피워내길 기대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봄호도 즐겁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Dear readers,

Spring has arrived, bringing warm sunshine and the sweet scent of blooming flowers. After the long winter, we hope this new season fills your days with vitality, warmth, and renewed energy.

In respond to population decline and labor shortages led by low birth rate and an aging population,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KIS) has implemented a demand-driven immigration policies this year. This initiative is designed to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stimulate regional economies.

To attract top-tier talent — an essential driver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 we have introduced a new “Top-Tier Visa.” Additionally, to promptly address the specific needs of local regions and industries, we have implemented a “Provincial-Specific Visa System.” Furthermore, we are operating a “Policy Proposal System for visa and residency matters,” enabling the private sector and local communities to directly propose and collaboratively shape immigration policies based on their requirements.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entry procedures and residency-related services has significantly enhanced both convenience and efficiency.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e-Arrival Card” system, inbound foreign passengers can now submit their entry information online before arrival, reducing wait times for immigration screening and streamlining the overall entry process. Additionally, the newly introduced “Mobile Residence Card” helps bridge the digital divide for foreign residents and contributes to creating a more convenient, secure and stable living environment in Korea.

This year, the KIS continues its efforts to improve any inconveniences faced by foreign residents and to address potential social tensions arising from expanding immigration — ultimately striving to build a society where people of all backgrounds, both Korean and non-Korean, can live together in harmony.

Just like new sprouts budding under the warm spring sunshine, we hope our increasingly vibrant immigration policies will foster new possibilities for our society.

We sincerely appreciate your continued interest and support, and we hope you enjoy the spring edition of the magazine “Gongzone.”

CONTENTS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2025. SPRING / VOL. 71

통권 71호(비매품)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발행일 2025년 4월

발행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연락처 02-2110-4019

주 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KIS+pecial

- 06 한국살이 리얼톡
베트남 출신 하 응옥 찼
(제1호 외국인 요양보호사)
- 10 출입국 탐구생활
이종철 주무관의 하루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심사와 향만심사팀)
- 14 쉼표 여행
푸른 숨결과 싱그러움 그리고 낭만 가득한 섬
- 18 감동 한 스푼, 행복 두 스푼
재한 외국인 & 직원 미담 사례



06



26

K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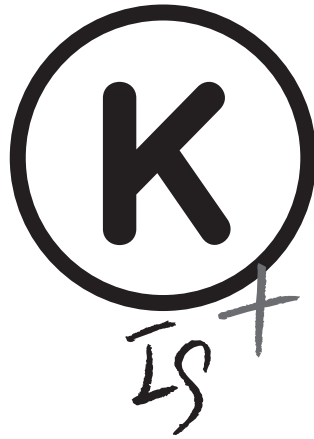
- 20 출입국 in FOCUS
전자입국신고 제도(e-Arrival Card)
- 24 정책 한눈에 쏙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제도
- 26 출입국 ON AIR
공공형 계절근로 현장 방문(안동와룡농협)
- 30 공감 돋보기
이민자 일상 리포트
- 32 세계인의 밥상
식탁 위의 대륙, 남아메리카를 맛보다

KIS+hare

- 34 이슈 Pick
출입국·외국인 정책 주요 뉴스
- 36 출입국 궁금타파
출입국·외국인 정책 Q&A
- 38 SNS 핫클릭! + 독자 이벤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SNS 소식
독자 참여 코너

www.immigration.go.kr
웹진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상큼한 윙크를 더해

살랑이는 봄바람과 함께 찾아온 설렘
봄이 윙크를 하게 합니다.
색색의 고운 꽃들이 땅에서 올라오며 자기가 제일인 양 활짝 피었습니다.

윙크는 한쪽 눈을 깜빡여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떤 신호나 사인입니다.
그 메시지에는 사랑이나 애교를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봄날, 그래서 윙크는 봄과 어울립니다.
계절이 시작되는 봄,
내 주변에 윙크로 첫 인사를 해보세요.
상큼한 윙크를 더해 기분 좋은 봄을 맞이하세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봄날의 햇살 같은 제1호 외국인 요양보호사



베트남 출신 하 응옥 찜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 한국에서 살고 싶어 요양보호사가 되었다. 어르신들을 돌보며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도리어 감동을 받곤 한다는 하 응옥 찜, 밝고 화사한 표정으로 어르신들의 일상에 봄을 선사하고 있는 그녀의 하루를 따라가 본다.





대한민국 제1호 외국인 요양보호사가 되기까지

꽃샘추위가 시작되던 날, 대전 ‘더사랑요양원’에서는 아침 건강 체조가 한창이었다. ‘하나, 둘, 하나, 둘’ 씩씩한 구호와 함께 예닐곱 명의 어르신들이 손을 올리고, 다리를 올리며 열심히 체조를 따라 하고 계셨다. 어르신들의 아침 체조를 돕고 있다는 우리나라 제1호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누구일까? 궁금한 마음에 찾아보니, 누구보다 화사하고 밝은 에너지를 뽐내내고 있는 하 응옥 찜이 한눈에 보였다. “어르신, 이렇게 손을 올려보세요. 이번엔 이렇게 해보세요” 하며 씩씩하고 활발하게 시범을 보이며 어르신들 한가운데 서 있었다.

하 응옥 찜이 한국에 온 것은 2018년. 유학생 신분으로 온 그녀는 한국이 그리 낯설지 않았다. 언니도 한국에 먼저 와서 공부하고 있었고 고모 가족도 이미 한국에 살고 있었으니까. 처음에는 한국어와 문화가 조금 어렵게 느껴졌지만 점차로 익숙해졌고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따뜻함에 마음을 열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자 점차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것이 너무 좋아졌다. 봄에는 벚꽃이 만개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다. 계절마다 색다른 매력이 있어 그에 맞춰 생활하는 것이 즐거웠다. 신기했던 것은 한국의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과 빠른 배달 서비스였다. 어느 곳에 가든 정시에 버스나 기차가 왔고, 온라인 쇼핑도 활성화되어 클릭 몇 번으로 원하는 물건을 쉽게 주문할 수 있었다.



모든 게 다 빠른 나라지만, 언어를 배우는 것만은 빨리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웠다. 특히 일상적인 표현과 속어가 나올 때면 그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 하 응옥 찜은 어려운 한국어를 포기하기보다는 부딪혀 보기로 했다. “한국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어요.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하 응옥 찜의 적극적인 면모는 요양보호사 도전기에서도 엿보인다. “한국 오래 있고 싶어서 비자를 연장하려고 직접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에 전화해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러다 지난해 7월 특정활동(E-7) 취업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이 신설되었다는 것을 알고 바로 요양보호사 학원에 등록해 자격증을 준비했어요. 두 번의 시도 끝에 합격했답니다. 그 후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도 등록해 취직하게 되었지요. 바로 여기 대전 ‘더사랑요양원’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놀랍다.

요양보호사, 하 응옥 찜의 하루

그녀의 아침은 어르신들께 인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식사와 개인위생을 돕고 낮에는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돕는다. 대화를 나누면서 정서적으로도 따뜻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한다. 그런 마음이 통해서일까? 하 응옥 찜이 지나가는 곳마다 가벼운 웃음소리, 인사가 따라다닌다. 표정이 거의 사라진 어르신의 입가에서도 희미한 미소가 떠오른다.

“제가 돌보는 어르신 중에는 부산에서 오신 분도 있거든요. 사투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알아듣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어르신들을 좀 더 잘 살퍼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요양원 내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몇 분 계신다. 그런 분들은 더 집중적인 보살핌이 필요하다.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1~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드리고 경관도 관리해야 한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교육이 필요했던 것이라. 요양보호사 교육이 어렵지는 않았다는 질문에 그녀는 웃으며 답한다.



“어려웠죠. 두 번이나 떨어졌는걸요? 교육 과정에서는 먼저 요양보호사의 기본 역할을 배우고요.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요. 240여 시간의 이론과 80여 시간의 실습 과정을 수료해야 하죠. 응급처치, 복약 관리, 개인위생 관리 등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배웁니다. 물론 처음에는 전문용어가 낯설었고요. 신체 돌봄을 배우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또한 단순한 돌봄뿐 아니라 정서적 지원도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어르신들과의 대화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도 했어요.”

요양보호사로서 꼭 필요한 준비는 어떤 것들이 있냐는 질문에 그녀는 대번에 원활한 한국어 소통 능력을 꼽는다. 어르신들과 소통이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이란다. 이외에도 요양보호사로 취직하기 위해서는 실습과 시험을 통과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도 현장에서의 실습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요구와 상태를 이해하고 돌봄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복한 한국살이, 매일 성장하는 기쁨 느껴

요양보호사가 된 후 그녀의 한국살이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 화사한 햇살을 담은 그녀의 표정이 많은 것을 말해준다.

“많이 성장했다고 느껴요. 우선 배려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이 커졌고요. 일을 하면서 보람도 참 많이 느껴요. 제가 온 후 저희 층에 계시는 어르신들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감사의 말씀을 해주시거나 조금씩 건강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하답니다. 요즘엔 도미노 같은 학교에 다닐 때 친구들과 했던 게임들을 가져와서 어르신들과 함께하기도 하는데요. 웃으며 즐기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좋아요. 작은 도움이라도 어르신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만족하고 있어요.”

하 응옥 짬은 한국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쌓은 경험을 다른 외국인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방법과 필요한 기술을 알려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먼 훗날 그녀의 꿈도 요양보호사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은 저에게 기회의 땅인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라는 새로운 직업을 안 것도 저에게는 행운이고요. 베트남에는 아직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준비가 되면 베트남에 가서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교육을 제공하며 어르신 돌봄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어요.”

한국은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며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무부가 특정활동(E-7) 취업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한국에 정착하고 싶은 많은 외국인이 요양보호사에 도전하여 하 응옥 짬처럼 화사한 봄을 맞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더 생생한
인터뷰 내용을
보고 싶다면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국제자유도시의 관문,

질서와 공존을 이끄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심사과 이종철 주무관



제주도는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과 외국인 방문객이 찾는 국제자유도시다. 이들의 첫 관문이 되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체류 허가부터 국경 관리까지 출입국 행정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 크루즈와 항공을 통한 입출국 심사는 물론, 제주 지역의 질서 있는 외국인 정책 운영을 선도하고 있다.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를 위한 사회통합 업무부터 우수 인재 유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제주 출입국 관리의 최전선을 지키는 이종철 주무관의 하루를 따라가 본다.

출입국 탐구생활

START



09:00AM

서귀포 강정크루즈터미널 도착

안녕하세요~!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심사와 항만심사 팀에서 출입국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철 주무관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출발해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크루즈가 제주도에 8시간 동안 정박할 예정입니다. 약 5,000명의 외국인이 제주도에 머무를 예정인데요. 이들의 입국심사와 출국보안검색을 위해 서귀포강정크루즈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부서 직원들도 지원을 외준 만큼 오늘 하루도 힘을 모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9:10AM

본격적인 업무 시작 전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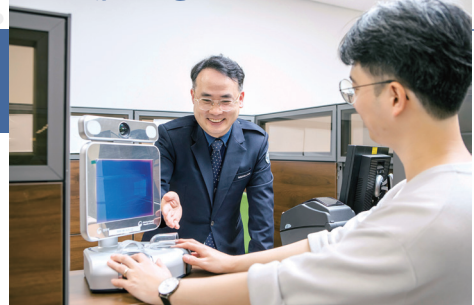
본격적인 입국심사 앞서 팀원들과 함께 특이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크루즈가 제주도에 도착하기 전에 승객 및 선원의 명부를 미리 받아 사전 분석을 진행합니다. 신속한 입국심사를 위해 입국 금지자나 입국 불허자, 강제 퇴거 이력이 있는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블랙리스트를 사전 확인하고, 해당 대상자가 하선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입국 심사만큼이나 사전심사 과정도 매우 중요하죠.



10:00AM

입국심사 시작

입국자를 직접 대면해 방문 목적과 기타 사항을 확인하고, 사전에 받은 명부와 대조하여 동일 인물인지 확인합니다. 이날 서귀포 강정크루즈터미널에 입항한 크루즈의 승객과 선원 모두가 입국심사 대상이죠. 입국심사를 통과한 승객들은 일정 시간 동안 제주도에 체류하며 관광을 즐기고, 선원들은 잠시 육지에 머무르며 휴식을 취하기도 하죠. 심사 대상 인원이 많은 만큼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후에는 출국보안검색 업무도 진행할 예정이에요.



12:30PM

점심 및 휴식



박재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님께서 심사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제주에 입항하는 크루즈와 외국인 승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총 345회, 약 80만 명이 제주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올해 말부터는 제주 크루즈터미널(제주·강정항)에 총 38대의 크루즈 자동심사대가 운영될 예정으로, 출입국 심사 소요 시간을 단축해,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 내 소비 증가도 기대해 볼 수 있죠. 현재는 직원들이 크루즈에 직접 승선하여 승객을 심사하는 선상 심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16:00PM

출국 심사 및 심층 면접

오후에는 제주도 관광을 마친 외국인들이 다시 크루즈에 승선하기 위해 출국 보안 검색을 받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크루즈 승객뿐만 아니라 배편을 이용해 출국하는 다른 외국인의 출국심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간혹 불법체류 전력이 의심되거나 입국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 이들은 별도의 공간에서 심층 면접을 실시해요. 심층 면접을 통해 입국 및 체류 경위, 신분 등을 자세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19:00PM

더 발전하는 내일을 다짐하며 퇴근

저녁이 되어서야 모든 일정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합니다. 입직 이후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업무를 맡아오다가 답답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2015년 가족과 함께 제주도에 내려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활에 매 순간 만족하며 지내고 있어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공항, 항만, 체류, 조사 등 다양한 업무를 골고루 경험할 수 있어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청의 직원들은 전문성은 물론 뜨거운 열정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가장 큰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만남 사람들

관리과 홍희연 주무관

“내·외국인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만듭니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접하는 게 재미있어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이 되었고, 2019년 입직해 올해로 6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출입국 심사와 조사 등 여러 업무를 맡아 왔으며, 현재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에서 외국인 체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심사는 빠른 판단과 민첩한 대응이 요구되는 반면, 체류 관리 업무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이나 각종 허가를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일이라, 외국인의 삶에 더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매력이 있죠. 최근에는 중국 상하이로 직접 출국해 크루즈 선상 심사를 수행하기도 했어요. 처음이라 긴장하기도 했지만, 꼼꼼히 준비한 덕분에 임무를 잘 수행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는 중국어 공부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방문하는데, 특히 중국 국적 외국인이 많은 만큼 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 준비하려고 해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해 주세요!



조사과 곽소현 주무관

“제주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겠습니다”

학부 시절 태국어학을 전공하면서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선배들 중에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이 된 분들이 많았던 것도 계기가 되었죠. 그러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 공무원으로 약 5년간 근무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이민특수조사대에서 출입국·외국인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면서 수사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수사 특별채용 소식을 듣고 지원해, 현재 제주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곧 제주 생활 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외국인의 인권 보호는 물론,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제주에는 공부하기 좋은 카페가 많아, 주말에는 커피 한잔과 함께 다양한 사례를 찾아보거나 새로운 수사 기법을 공부하며 자기계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가끔은 입국심사를 지원하기도 하는데요. 곧 상하이에서 진행되는 선상 심사에 처음으로 참여할 예정이라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해내고 오겠습니다!



푸른 숨결과 싱그러움 그리고 낭만 가득한 섬

늦봄, 초여름 사이의 제주를 거닐다

바람결에 실려 오는 꽃향기가 짙어지고, 햇살이 부드럽게 대지를 어루만지는 늦봄은 제주의 다채로운 모습을 만나기에 더없이 좋은 때다. 번잡함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온전한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우리나라 남쪽 끝자락의 작은 섬 가파도와 천년의 숲 비자림 그리고 바다와 함께 걷는 한담해안산책로를 찾아가 보자.

Gapado



푸르른 보리밭 물결 아래 고요한 섬 ‘가파도’

제주 남서쪽 운진항에서 배를 타고 10여 분이면 닿는 섬, ‘가오리’를 닮아 ‘가파도’라고 이름 지어진 납작한 모습의 섬이다. 고도가 해발 20cm를 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키가 작은 섬이지만, 이곳에 발을 딛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평화로운 분위기가 여행객을 맞이한다. 가파도의 낮은 능선을 따라 걷다 보면, 돌담 너머로 끝없이 펼쳐지는 청보리밭과 그 너머로 제주의 푸른 하늘의 조화가 한껏 어우러진다. 특히 3월 중순에서 5월은 섬 전체가 초록빛의 청보리로 뒤덮여 장관을 이룬다. 바람에 일렁이는 청보리 잎사귀의 물결은 마치 섬 전체가 살아 숨 쉬는 듯한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드넓은 청보리밭 사이를 따라 조성된 올레길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스트레스가 어느새 사라진다.

아름다운 해안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산책 코스다. 걷다 보면 웅기종기 모여 앉은 해녀와 발일하는 주민들의 정겨운 모습도 엿볼 수 있다. 갯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식당에 들르는 것도 잊지 말자. 푸짐한 가파도의 인심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날씨가 온화할 때는 자전거를 빌려 섬 곳곳을 둘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남쪽 끝자락의 ‘소망전망대’에 오르면, 푸른 바다와 함께 한라산의 웅장한 모습까지 한눈에 담긴다.

해안 따라 걷는 송악산 둘레길

비교적 완만한 길을 따라 걸으며 크게 펼쳐지는 가파도, 마라도, 형제섬과 산방산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해안 산책 코스다. 다크투어리즘의 일환으로 길 곳곳에 남겨진 동굴진지 등 일제강점기 군사 시설의 흔적을 지나칠 수 있다.

난이도 ★★☆☆

거리 총 2.8km / 1시간~1시간 30분

코스 송악산 주차장 - 해안 절벽길 - 각종 전망대 - 일제 동굴 진지

천년의 세월을 품은 신비로운 숲 ‘비자림’

가파도에서 드넓은 청보리밭의 매력을 만끽했다면, 이번에는 천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한 비자림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500~800년 된 거대한 비자나무 2,800여 그루가 뻗뻗하게 들어선 비자림은 동화 속 세상에 온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울창한 비자나무 숲길을 걷는 동안,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쏟아지고 숲 전체를 감싸는 비자나무 특유의 향기가 심신을 편안하게 보듬어 준다. 피톤치드가 풍부한 비자림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다. 비자림은 짧은 코스부터 긴 코스까지 다양한 산책로가 있어 자신의 체력에 맞춰 숲을 탐험할 수 있다. 지금은 숲의 녹음이 가장 짙어지는 시기로 그 어느 때보다도 울창하고 싱그러운 숲을 만날 수 있다. 숲속 깊이 들어갈수록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거대한 비자나무 자태에 절로 감탄사가 터져 나온다. 그중에서도 2000년 1월 1일 밀레니엄을 기념해 이름 지어진 ‘새천년 비자나무’를 마주하면 자그마치 816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뎌온 자연의 힘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이 외에도 벼락을 맞고도 살아난 ‘벼락 맞은 나무’, 두 나무가 하나로 합쳐진 ‘연리목’도 만날 수 있다.

오름 여왕의 품격과 전망

동부 오름의 대표 주자로 손꼽히는 다랑쉬오름. 멋진 전망을 지닌 탓에 ‘오름의 여왕’이라 불린다. 비자림 인근에 있는 다소 가파른 오르막이지만 성산일출봉과 주변 오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장관을 만날 수 있다.

난이도 ★★☆☆

거리 총 2.4km / 1시간~1시간 30분

코스 다랑쉬오름 입구 - 가파른 오름길 - 정상 분화구 - 파노라마 전망





제주도 푸른 바다를 따라 걷는 낭만 ‘한담해안산책로’

제주 서쪽 애월읍 한담해안산책로는 애월리에서 곽지리까지 약 1.2km의 해안을 따라 조성된 아름다운 산책로다. 한쪽에는 푸른 물결이 반짝이는 제주 바다를 두고, 다른 한쪽에는 신록의 들판이 있는 길을 두고 걷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행복이다. 끊임없이 철썩이며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소리는 귀마저도 즐겁게 한다. 용암이 굳어져서 생긴 검고, 다양한 형태의 기암괴석을 지나치며 자신만의 형상을 찾아보는 것도 한담해안산책로만의 색다른 재미이다.

걷는 동안 시원하게 불어오는 해풍은 더위를 식혀주어 쾌적한 산책을 즐길 수 있게 해준다. 긴 휴식이 필요하다면 산책로 중간에 벤치와 카페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더욱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때 일몰도 빼놓을 수 없다. 석양이 질 무렵의 한담해안산책로는 붉게 물든 노을과 바다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어 감탄을 자아낸다.

산책이 끝났다면 애월읍 곳곳으로 발걸음을 돌려보자. 애월읍은 TV 예능프로그램 <효리네민박>에 등장하며 ‘제주살이의 낭만’을 상징하는 곳이 되었다. 이후 트렌디한 카페와 식당이 몰려들어 ‘핫플’로 자리 잡았고, 최근에는 OTT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의 인기로 힘입어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어 제주 여행 필수 코스로 손꼽힌다.

하얀 모래와 푸른 바다가 맞닿은 곳

애월리 마을에서 시작한 한담해안산책로 종점인 곽지해수욕장은 넓은 백사장과 얇은 수심을 자랑한다. 특히 여름철에는 다양한 해양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고, 해변을 따라 늘어선 편의시설과 다양한 맛집이 있어 트래킹 마무리 코스로 제격이다.

난이도 ★★☆☆

거리 총 1.2km / 30분

코스 한담해안산책로 - 곽지해수욕장 - 해변에서 휴식 또는 식사



한국 사회와 동행하며 쌓아온 신뢰와 감사의 여정

낯선 문화 속에서 배움을 이어가며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온 무하마드 칼리드 빈 이스마일.
비즈니스를 넘어, 문화와 사람,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이어가는 그의 여정을 소개한다.

무하마드 칼리드 빈 이스마일
(말레이시아)



유학생에서 신뢰받는 사업가로

2007년, 말레이시아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길에 오르면서 저와 한국과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대학교까지 졸업한 뒤 내로라하는 기업에도 입사해 한국의 기업문화와 사회를 직접 체험하고 배웠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한국인 아내를 만나면서 잘 극복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저와 제 아내가 가까워진 것처럼 말레이시아와 한국도 더 가까운 관계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바람 속에서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해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말레이시아의 풍부한 자원이 공유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여행업과 무역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말레이시아의 여러 기업과 정부 기관에서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요청받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였죠. 이미 오해가 있었거나, 거래가 이어지지 않은 사례도 많았기에 저는 신뢰 형성에 큰 노력과 오랜 시간을 쏟았습니다. 덕분에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온라인 네

트워드를 유지하며 말레이시아의 사업가, 정부 인사가 한국을 방문할 때 저희 여행사가 의전을 수행하는 등 여러 기회와 결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문화적 가교가 되어 이어가는 감사와 책임

양국 간의 언어·문화 장벽을 허무는 데 한국의 대학과 기업에 다니며 얻은 경험의 영향이 컸습니다. 덕분에 서울 명예시민증과 서울관광대상을 받기도 했고, 종종 한국에서는 ‘말레이시아 하면 칼리드’라는 말도 듣게 되어 뿌듯했습니다. 특히 두 나라의 방송에도 출연해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널리 알리는 일은 저에게 큰 자부심이죠.

사랑은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서울시 외국인주민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고, 한국에 거주하는 말레이시아인을 위한 통번역사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말레이시아와 한국 양국의 연결 고리로서 어떤 역할이든 책임감 있게 감당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가능성과 희망을 열어준 두 나라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봄바람에 실려 온 칭찬

따뜻한 마음으로 민원인을 맞이해준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가 도착했다. 작은 배려가 큰 위로가 되는 순간들, 그
고마움이 온전히 전해지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

상담 그 이상의 감동을 주는
정경미 상담원님을 칭찬합니다.

업무 특성상 주변에 있는 많은 상담원을 봐 왔는데요 민원인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안타까웠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경미 상담원님 같은 분만 있다면 세상 모든 민원이 시원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민원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알려주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From. 0100 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정경미 상담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벚꽃이 피는 봄,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상담원 일을 시작한 후 8년 동안 매일 상담전화를 받을 때마다 다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상담하는 것입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345에 전화를 주시는 모든 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꾸준한 나아가는 상담사가 되겠습니다.”

친절한 미소와 따뜻한 배려를 전하는
김영민 주무관님을 칭찬합니다.

외국인 아내의 비자 발급 때문에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관공서 특유의 분위기 때문에 괜히 긴장되기도 하는데, 그날 김영민 주무관님을 만나 기분 좋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어요. 하나하나 꼼꼼히 알려주시고, 자세하면서도 쉽게 설명해 준 김영민 주무관님 덕분에 친절하고 상냥한 자세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지를 깨달았습니다.

From. 최00 님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
김영민 주무관



“공직자로서 민원인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지만, 저로 인해 누군가가 크게 감동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낍니다. 민원인의 따뜻한 칭찬 덕분에 제가 하는 일이 단순한 민원 처리를 넘어 민원인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신뢰를 쌓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친절과 배려를 잊지 않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입국 신고는 온라인으로 더 편리하고 정확하게

전자입국신고 제도

법무부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하였다.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사전에 작성할 수 있어 입국장에서 종이 입국신고서를 꺼내 들고 바쁘게 작성하던 풍경도 과거의 일이 될지 모른다. 대기시간 단축은 물론, 입국 심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향상된 '전자입국신고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전자입국신고

더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는 인적사항 및 여행정보 등 입국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간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해 입국심사관에게 직접 제출해 왔다. 입국심사관은 제출받은 종이 입국신고서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일일이 직접 스캔하고 있어, 입국심사 시간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나, 법무부가 올해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이 해소되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입국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에는 현재와 같이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전자입국신고 대상자는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 제출 대상자와 동일하며 당분간 입국자 본인 의사에 따라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 또는 전자입국신고서 작성을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전자입국신고 대상

- ① 관광객 등 우리나라에 90일 이하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 ②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중 아직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지 않은 외국인

※ (제출 면제자) 유효한 K-ETA 허가서 소지자,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영주증 소지자, 국내거소신고자 포함), 단체(전자) 사증 소지자, 항공기 승무원 등



PC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전자입국신고는 대한민국 도착 3일 전부터 입국심사를 받기 전까지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www.e-arrivalcard.go.kr 또는 QR코드 스캔)를 통해 작성·제출할 수 있다.

※ 예) 대한민국 도착일자가 2025년 3월 31일인 경우, 전자입국신고 가능일은 ① 2025년 3월 29일, ② 2025년 3월 30일, ③ 2025년 3월 31일(당일 입국 심사를 받기 전까지)

※ 전자입국신고서를 제출하고 72시간 이 지나도록 입국하지 않으면 이미 제출한 전자입국신고서는 무효 처리



스마트폰으로 신고 시 여권에서 사진과 인적사항이 나오는 페이지를 촬영해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에 올리면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단체 입국 시 정보를 일괄 입력할 수 있는 ‘단체전자입국신고’ 기능도 있어 신고자 수에 맞춰 입국목적, 체류예정지, 항공편명 등 공통사항을 한 번만 입력하면 된다.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제출자에게는 전자입국신고서 발급번호와 만료일시가 기재된 제출 완료 이메일이 전송되며, 신고자가 원할 경우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캡처할 수도 있다.

다만, 입국심사관은 신고된 내용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전자입국신고 확인서 등을 출력하여 소지할 필요는 없다.

전자입국신고 제도의 시행으로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사전에 제출하게 되어 입국장 내 대기시간이 감소하고 공항 혼잡도도 완화되어 입국 외국인에 더욱 신속한 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외국인 입국자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안전한 국경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입국신고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 작성 및 제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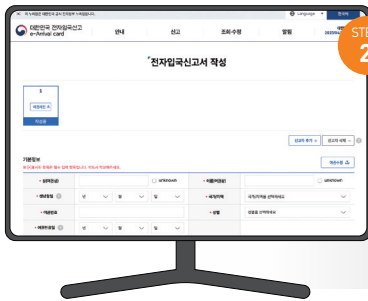


STEP 1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 접속

-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
(www.e-arrivalcard.go.kr)하거나 QR코드로 접속
- 대한민국 도착 3일 전부터 입국 심사 전까지 작성·제출 가능
- 이용대상: 90일 이하 단기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외국인 등록을
마치지 않은 장기사증 소지 외국인 등
- 준비물: 이메일 주소, 여권, 여행정보(입·출국 정보),
체류정보(체류예정지 및 연락처)

※ 홈페이지 '내비게이터' 메뉴에서 본인의 입국 조건에 따라 작성 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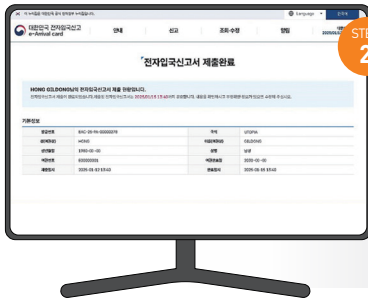


STEP 2

전자입국신고서 작성

- 입력 항목
 - 여권 정보(성명, 생년월일, 국적, 성별, 여권번호 및 만료일)
 - 여행정보(입·출국 정보), 체류정보(체류예정지 및 연락처), 입국목적, 직업 등

※ 여권 인적면을 촬영하거나 파일을 업로드하면 여권 정보가 자동 입력됨
(단, 여권 인적면 촬영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웹에서만 가능)



STEP 2

제출 완료

- 신고자가 제출을 완료하면 전자입국신고서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캡처 가능
- 또한 신고서 제출자에게 전자입국신고서 발급번호 및 만료일시가 기재된 이
메일이 전송됨

※ 제출 후에도 입·출국일 체류정보(체류예정지 및 연락처), 입국목적, 직업은 수정 가능(단,
입국일은 최초 신고일로부터 3일 내에서만 수정 가능)

※ 세부 신고절차 ※

STEP 1

약관동의
(이메일 주소)

STEP 2

여권정보 입력
(유효한 여권)

STEP 3

여행정보 입력
(입·출국/체류정보)

STEP 4

입력정보
확인

STEP 5

제출

e-Arrival Card

Ministry of Justice launches “e-Arrival Card,” providing international travelers with a faster and easier access to the entry process

The Ministry of Justice launched the e-Arrival Card system, allowing inbound foreign passengers to submit their arrival information online before they arrive, using a PC or smartphone. Anyone who has traveled abroad might remember the scramble to fill out a paper arrival card at the airport before going through immigra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e-Arrival Card, that's quickly becoming a thing of the past. The system is streamlining the immigration process and providing foreign travelers with a faster, more efficient entry experience. To avoid confusion during the initial phase, both options—a paper or online arrival card—will remain available until 2025.

How to submit the e-Arrival Card

Inbound foreign passengers planning to stay in Korea for less than 90 days or those holding a long-term visa who have not yet completed residence registration in Korea, are required to submit an e-Arrival Card. Travelers can fill out and submit the e-Arrival Card using a PC or smartphone through the official website (www.e-arrivalcard.go.kr), which is also accessible via QR Code. The e-Arrival Card should be submitted at least three days before arriving in Korea. However, travelers may still submit it upon arrival, as long as it is done before proceeding through immigration inspection.

By taking a photo of the passport's information page with a smartphone or uploading an image file, details such as the holder's name, date of birth, and passport number will be automatically filled in. One person can fill in arrival information on behalf of other members of a group tour. After the e-Arrival Card is submitted, a submission number and expiration date will be sent by email.

Scan the QR code to visit the official e-Arrival Card website.

※ Note: Be cautious of fake websites that use names similar to the official one.

We never charge a fee for submitting the e-Arrival Card



Guide to e-Arrival Card

1 Visit the e-Arrival Card website

- Go to www.e-arrivalcard.go.kr or scan the QR code to access the official e-Arrival Card website.
- **Submission** is available from 3 days before arrival until just before immigration inspection.
- **Eligibility:**
 - Foreign nationals planning a short-term stay of 90 days or less
 - Long-term visa holders who have not completed residence registration
- **What you need to prepare:**
 - Email address - Passport - Travel details (e.g., itinerary)
 - Place of stay (accommodation address and contact number)
- ※ You can check your eligibility based on your entry conditions using the website's "Navigator" menu on the website.



2 Complete the e-Arrival Card

- Enter the required information:
 - **Passport details** (name, date of birth, nationality, gender, passport number, and expiration date)
 - **Travel details** (entry and departure information)
 - **Place of residence** (accommodation address and contact information)
 - **Purpose of entry, occupation**, and other relevant details
- ※ If you take a photo of your passport's information page or upload an image file, the passport details will be filled in automatically.
- * Note: The photo capture feature is only available on the mobile version of the website.



3 Submit the e-Arrival Card

- After submission, you can download the e-Arrival Card as a PDF or take a screenshot for your records.
- A confirmation email will be sent to you, including your e-Arrival Card issuance number and its expiration date and time.
- ※ If needed, you can edit certain details after submission, such as travel dates, accommodation/contact information, purpose of entry, and occupation.
- * Note: The entry date can only be modified within 3 days from the originally declared date.



Entry Declaration Procedure

STEP 1
Agree to Terms and Conditions
Enter your email address to begin

STEP 2
Enter Passport Information
Provide details from your valid passport

STEP 3
Enter Travel Itinerary
Input your arrival and departure dates, accommodation and contact details

STEP 4
Review Information
Carefully check all entered details before submitting

STEP 5
Submit

우리나라 돌봄 인력 해결,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E-7(특정활동)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2024년 7월 법무부는 특정활동(E-7) 취업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분야 취업을 허용하였고, 올해 1월 최초로 비자를 발급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 정착해 노인 돌봄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 해소와 더불어 사회통합에도 긍정적인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제도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비자부터 일자리까지 지원!

D-2(유학) 비자와 D-10(구직) 비자 소지자까지 요양보호사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취업 시 'E-7(특정활동)' 비자로 변경을 지원하는 제도다. E-7비자로 변경하게 되면 체류기간은 1회 최대 3년까지 부여되며, 체류기간의 연장을 위해서는 고용계약의 유지가 필요하다.

- 유학생 요양보호사 제도는 외국인 돌봄 인력의 국내 정착과 요양보호사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한다.

자격 취득 주요 정보는 어디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및 우수 장기요양기관 정보



044-202-3521, 3514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또는 각 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2 유학생도 요양보호사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식사, 목욕, 산책, 보행훈련 등 간단한 재활훈련과 같은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대화 상대가 되어 주는 등 심리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떻게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나요?

* 국내 대학(일반대, 전문대)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이론·실기 240시간 및 장기요양기관에서 현장실습 80시간, 총 320시간을 이수

- 한국보건직업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 후 합격

요양보호사가 된 이후에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 자격 취득 후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에 취업 시 E-7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 장기 체류 가능: 체류기간의 연장을 위해서는 고용계약의 유지 필요

3 E-7 비자,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외국인 유학생		노인의료복지시설	
한국어 능력(다음 중 하나)	학력 요건	임금 요건	고용 비율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급 이상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사전평가 61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최저임금 이상	국민 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 허용

Tackling Korea's Care Workforce Shortage – Together with International Students!

“Caregiver” Now Recognized as an Eligible Occupation under the E-7 (Special Activity) Visa



The Ministry of Justice, in collaboration wi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established a new system that allows international students who have graduated or will graduate from Korean universities or colleges to obtain an E-7 (Special Activity) visa if they acquire a caregiver certificate and secure employment at a care facility.

In July 2024, the Ministry of Justice added “caregiver” as a new occupational category under the E-7 visa, allowing international students to work in the elder care sector. The first visa under this new category was issued in January 2025.

This system supports international students in settling in Korea and securing stable employment in the field of elderly care.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positively not only to addressing the shortage of care workers caused by Korea's transition into a super-aged society but also to promoting social integration.

1 What Is the Caregiver Certificate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s?

From Certificate to Visa and Employment—Comprehensive Support for Aspiring Caregivers!

The program expands eligibility for caregiver to include individuals holding D-2 (International student) and D-10 (Job seeker) visa status, supporting them in transitioning to E-7 (Special Activity) visa status upon securing employment at senior care facilities. The E-7 visa allows for a maximum stay of three years per issuance. To extend their authorized stay, continued employment under a valid contract is required.

– The caregiver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s aims to support the settlement of foreign caregivers in Korea and to alleviate the shortage of care workers.

Where Can You Find Key Information on Earning a Caregiver Certificate?

Information on Caregiver Training Institutions and Leading Long-Term Care Facilities



044-202-3521, 3514

Available o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Long-Term Care Insurance Division) website or local city/provincial government websites.

2 International Students Are Now Eligible to Work as Caregivers!

What Does a Caregiver Do?

Caregivers assist with physical activities and daily living, including meals, bathing, walking, and basic rehabilitation exercises such as mobility training. They also provide emotional support by offering companionship and engaging in conversation.

How Can You Become a Caregiver?

- * International students who are currently enrolled in, or have graduated from, a university or college in Korea are eligible to obtain a caregiver certificate.
- A total of 320 hours of training must be completed, including 240 hours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instruction at a certified caregiver training institution, and 80 hours of on-site training at a long-term care facility.
- Pass the Care Worker Qualification Exam, administered by the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KHPLEI)

What Benefits Can You Expect After Becoming a Certified Caregiver?

- * Become eligible to obtain the E-7 visa status upon securing employment at a senior care facility (nursing home) after acquiring the caregiver certificate
- * Become eligible for long-term stay
(Please note that extending the authorized stay requires continued employment under a valid contract.)

3. What Are the Requirements for Obtaining the E-7 Visa Stat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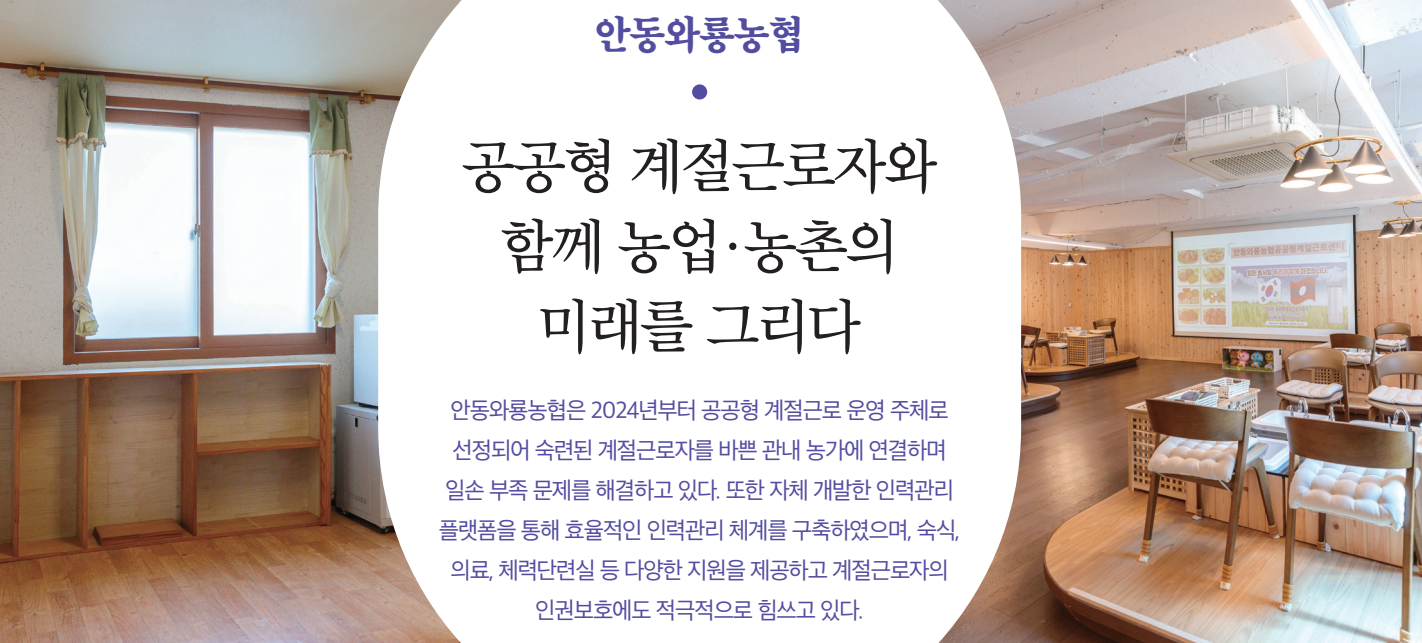
International Students		Senior Care Facilities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y one of the following)	Educational Requirement	Wage Requirement	Employment Ratio
– Completion of Level 3 or higher in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KIIP) – Score of 61 or higher on the KIIP placement test – Level 3 or higher on the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	Associate degree or higher from a Korean university or college	Must offer at least the legal minimum wag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is permitted up to 20% of the total number of Korean employees.



안동와룡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자와 함께 농업·농촌의 미래를 그린다

안동와룡농협은 2024년부터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주체로 선정되어 숙련된 계절근로자를 바쁜 관내 농가에 연결하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자체 개발한 인력관리 플랫폼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숙박, 의료, 체력단련실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 공공형 계절근로자, 안동지역 농업의 버팀목이 되다

안동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고추, 산약(마) 최대 생산지이자, 사과·생강 재배 면적 역시 전국 상위권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도농복합지역이다. 하지만 초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로 인해 일손 부족이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농작물은 파종과 방제, 수확 시기를 놓치면 품질과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인력 확보는 농가 경영에 있어 필수 과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안동와룡농협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직접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후 하루 또는 이를 단위로 농가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라오스 노동부와 정식으로 MOU를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일정 기간 숙련된 인력을 우리나라로 초청해 농번기 일손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 약 70명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121명까지 인력을 늘려 안동 농가에 안정적인 노동력을 공급하고 있다.

계절근로자들이 현장에 투입되면서 계획 영농이 가능해졌고, 농산물의 품질 향상은 물론 농가 소득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는 단순히 외국인 인력 수급을 넘어, 지역 농업의 생산 구조를 안정화하는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 복지·운영·신뢰를 갖춘 안동와룡농협 모델

안동와룡농협의 공공형 계절근로로는 단순한 '고용'에만 그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우리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 실제로 라오스 노동부에 따르면 "안동와룡농협에서 일하고 싶다"는 희망자가 많다고 한다. 그 이유는 숙소와 복지, 처우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로 알려진 덕분이다.

근로 기간 동안 근로자들은 안동와룡농협에서 임대한 1인실 숙소에서 머무른다. 숙소 내에는 체력단련실과 공동 취사 공간, 휴게실 등이 마련돼 있으며, 식사는 라오스 출신 요리사가 직접 조리해 제공한다. 관내 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필요 시 건강검진이나 진료도 받을 수 있고, 여성 근로자를 위한 전담 상담창구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 현재 여성 근로자 비율은 전체 인원의 약 30%로, 부부가 함께 근로하는 경우도 있다.

언어 장벽 극복을 위한 교육 시스템도 돋보인다.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운전이나 농기계 사용법 등은 영상 콘텐츠 중심으로 제작해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일 파티를 열거나, 우리나라 전통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육체적·심리적 안정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안동와룡농협이 자체 개발한 인력관리 플랫폼 'NH 시즌워크'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관리 체계를 만든 것이 눈에 띈다.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인력 배정을 신청하거나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농작업 이력과 특징 정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급여와 일정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져 농가와 근로자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MINI INTERVIEW

농업의 지속 가능성, 공공형 계절근로에서 답을 찾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촌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실질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인건비 상승, 고령화 등 복합적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존재는 농촌에 단비와 같죠. 장기적으로는 공공형 계절근로를 통해 우수 인력을 우리나라에 정주하게 하는 제도 마련에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공형 계절근로가 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신정식
안동와룡농협 조합장

한국 농가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라오스 청년들의 이야기!!

룽 ● 한국에서 우수한 농업기술을 배워가려고 합니다. 라오스에서 카사바나 채소를 재배할 때 배운 것들을 적용해 선진농업인이 되고 싶어요.



마나 ●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에 적응하기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벌써 적응한 것 같아요. 맛있는 한식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시캄권 ●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어를 조금씩 공부하고 한국 농업에 대해서도 미리 배워 왔어요. 앞으로도 배울 것이 많아 기대됩니다.



완살령 ● 2023년, 2024년 그리고 올해까지 매년 계절근로자로 한국에 오고 있습니다. 올 때마다 한국은 노동법이나 근로자 관련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고 느껴요.



우리나라 농가의 일손을 돕기 위해
성실하게 하루하루 땀 흘리고 있는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숨편 ●

멀고 낯선 곳에 와서 일한다는 점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근무할 수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동료들도 있고요!

나원다 ●

계절근로자로 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한국에서도 운전할 수 있도록
국제면허도 취득했구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툼 ●

선진 농업기술을 배우며 '내일은 또 어떤
일을 할까'라는 설렘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숙소에서 같은 나라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도 즐겁고요.

다아룽 ●

한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일하는 보람이 있고요,
쉬는 날에는 다양한 체험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민자 일상 리포트 TV를 끄고, 여가를 즐기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또 한국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으며, 차별을 경험한 적은 없을까. 외국인의 여가생활 만족도와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차별 경험 여부까지 최근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그 변화와 의미를 알아보자.

자료 통계청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

여가활동 형태



외국인

등록외국인



귀화허가자

최근 5년 이내
(2019. 1. 1. ~ 2024. 5. 15.)
한국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TV는 줄고, 체험은 늘고 이민자 여가생활의 새로운 흐름

우리나라의 이민자 중 가장 많은 사람이 TV시청으로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외국인과 귀화허가자에서 각각 34.4%와 37.4%로 높은 수치를 보는데, 눈에 띄는 점은 모두 전기(2022. 5.) 대비 10%p 이상 하락한 수치다. '스포츠 관람 또는 참여', '여행', '컴퓨터 게임', '취미·자기개발 활동' 등은 소폭 상승해, 능동적인 여가 활동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만족 63%' 내외, '보통 32%' 내외였다. 두 집단에서 '만족'은 모두 전기 대비 상승했고, '보통'과 '불만족'은 하락한 것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여가 경험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언어 장벽을 낮춘 여가 정보, 다양한 문화권을 고려한 여가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해 보인다.

여가활동 형태

(단위 = %)

	외국인	귀화허가자
TV시청	34.4	37.4
문화예술 관람·참여	4.5	4.5
스포츠 관람·참여	8.0	4.3
여행	9.7	12.2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	11.7	8.9
취미·자기개발 활동	10.9	12.8
휴식 활동	17.3	15.9
사회 및 기타 활동	3.0	3.1
기타	0.4	0.8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상승, 언어 장벽은 여전히 높아

여가생활을 포함한 외국인의 전반적인 한국생활 만족도는 '만족' 84.3%로 전기 대비 3.9%p 상승했다. 귀화허가자의 응답 역시 '만족'이 86.2%로 전기 대비 4.6%p 상승했다. 두 집단 모두 '만족' 비율이 상승했다는 점은 한국에서의 주거 환경, 주변 사람과 관계 등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 귀화허가자의 만족도가 외국인보다 더 높고 상승폭도 큰 것으로 보아 귀화가 생활 만족도 향상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반면, '한국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두 집단이 차이를 보였다. 모두 '어려운 점 없음'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점은 같았지만, 외국인은 34.7%, 귀화허가자는 45.3%로 큰 폭의 차이를 보였고, 어려운 점으로 꼽은 '언어 문제'의 응답률은 외국인 29.8%, 귀화허가자 18.3%였다.

한국생활 만족도

() = 2022. 5. 대비 증감 수치
(단위 = %, %p)

외국인

만족	보통	불만족
84.3 [+3.9]	14.2 [-3.5]	1.5 [-0.4]

귀화허가자

만족	보통	불만족
86.2 [+4.6]	12.8 [-4.4]	1.0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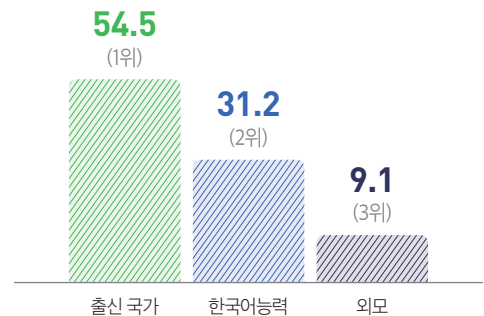
'출신국', '언어', '외모'의 벽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

외국인과 귀화허가자가 경험한 한국생활 만족도는 높지만, 여전히 일부에는 차별이 존재했다. 지난 1년간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률은 두 집단 모두 17% 내이며, 다행히 전년 대비 각각 2.3%p, 2.8%p 감소했다. '출신 국가'와 '한국어 능력', '외모'가 차별의 주요 원인이었으며, 이외에 '경제력', '직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전체적으로는 차별 인식이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특정 조건에 따른 편견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포괄적이고 정밀한 사회통합 정책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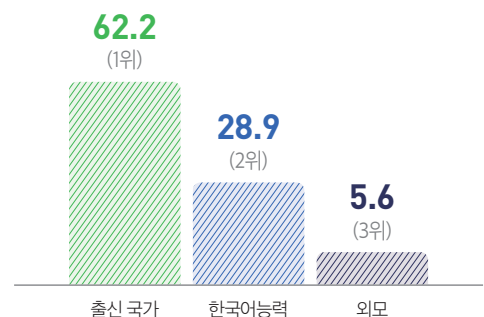
차별 대우 원인 TOP 3

(단위 = %)

외국인



귀화허가자



식탁 위의 대륙, 남아메리카를 맛보다

햇살은 더욱 짙어지고, 입맛은 점점 멀리 떠나고 싶어진다. 이럴 땐 비행기 없이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요리'다. 특히 다채로운 자연과 문화를 품은 남아메리카의 식탁은 미지와 낭만을 동시에 품고 있다. 잠자던 미각을 깨우고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열정 가득한 남아메리카 미식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자.

세계 음식의 문화가 모인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음식은 낯선 듯하지만, 그 깊이에 빠져들면 한없이 매혹적이다. 16세기 유럽의 제국주의 침략으로 아픈 역사를 겪으면서 남아메리카의 토착 식재료와 서양의 조리법이 융합되었다. 잉카 문명에서 유래한 감자와 옥수수 등 주재료에 유럽 식민지 시대에 유입된 재료가 더해진 것이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통해 육류 요리법과 향신료가 전해졌고, 이후 이탈리아나 독일의 이민자들이 파스타, 소시지와 같은 자국의 요리 문화를 가지고 왔다. 여기에 페루의 중화요리라고 불리는 '치파(Chifa)'처럼 아시아 이민자들 음식문화까지 더해져 남미의 식탁은 그야말로 전 세계 맛이 어우러진 장소가 되었다.

남아메리카 국가별 대표 음식



01



브라질

페이조아다(Feijoada)

검은콩과 돼지고기, 소시지 등을 푹 끓여낸 브라질의 대표 음식이다. 포르투갈에서 전해져 식민지 노예들의 음식이란 아픈 역사를 품고 있지만, 지금은 모두가 즐기는 국민 요리다.

02



우루과이

치비토(Chivito)

우루과이의 국민 샌드위치이자 '샌드위치의 왕'. 얇게 썬 스테이크에 모차렐라 치즈, 토마토, 마요네즈 그리고 달걀 프라이 등을 넣었다. 우루과이 국민의 한 끼 식사를 책임진다.





03



칠레

파스텔 데 초클로 (Pastel de Choclo)

다진 고기, 닭고기 위에 달콤한 옥수수 반죽을 채워 오븐에 구워낸 칠레식 옥수수 파이다. 칠레에서는 가정식으로 주로 많이 먹는 요리다.



+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어 보기 +



상큼한 칠레 대표 음식 '세비체'

세비체(Ceviche)는 주로 흰살생선 등 해산물을 라임이나 레몬즙에 절여 양파, 고추 등을 조합해 차갑게 먹는 페루 대표 요리다. 톡 쏘는 상큼함과 재료의 특성이 잘 담긴 감칠맛이 일품이다. 특히 낱생선에 익숙한 한국인의 입맛에도 대부분 잘 맞는다. 상큼하고 시원한 별미를 먹어보고 싶다면 직접 세비체를 만들어 먹어보는 건 어떨까.

◎ 소요 시간: 30분 내외(재우는 시간 포함)

◎ 난이도: 중하(★★☆☆☆)

◎ 주요 재료 • 흰살생선(광어, 농어와 같은 흰살생선) 200g • 라임 또는 레몬 3~4개 분량의 즙 • 붉은 양파 1/4개 • 고추 1/2개(기호에 따라 적절히) • 고수 한 줌(선택) • 소금 1~2g • 후추 1~2g • 곁들임(선택): 삶은 고구마 또는 나초, 아보카도 등

만드는 방법



- ① 흰살생선은 껍질과 가시를 제거하고 큐브 모양으로 썬다.
- ② 양파는 가늘게 채 썰어 찬물에 5분 정도 담가 매운 기를 뺀 후 물기를 제거한다.
- ③ 그릇에 손질한 생선, 양파, 고추를 넣고 라임(레몬)즙을 재료가 잠길 정도로 부어준다.
- ④ 가볍게 섞어 냉장고에서 10분 정도 재운다.(너무 오래 재우면 식감이 딱딱해지니 주의)
- ⑤ 그릇을 꺼내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춘다. 기호에 따라 준비된 다진 고수를 넣으면 완성!

2025
SPRING
Vol.71

KIS NEWS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영덕군 산불 현장에서 마을 주민 구조한 인도네시아 선원들, 법무부 장관 표창 수상

01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지난 4월 18일(금) 최근 경북 영덕군 산불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수의 마을 주민을 구조한 인도네시아 수기안토(31), 레오(24), 비키(24)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이들의 공적을 기려 안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특별기여자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였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인도네시아 세 분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많은 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으며, 산불로 인하여 국가적 재난이라는 힘든 시기에 국민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큰 위로를 주었다”며 “이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표창을 수여받은 수기안토씨는 “이 동네 노인분들은 나의 가족이나 다름없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언젠가는 한국에서 성공해서 선장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국가 경쟁력 강화 위한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본격 시행

02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4월 2일(수) 언론브리핑에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핵심 과제이자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시행 예고된 '광역형 비자', '탑티어(Top-Tier) 비자' 등 수요자 맞춤형 비자 신설과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통한 구체적인 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6일(수) 경제계 및 산업계 등에서 제안한 비자·체류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제1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6개 제안을 수용했다. 또한, 법무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설계한 지역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과 글로벌 기술혁신을 주도할 첨단산업 분야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Top-Tier) 비자' 제도를 지난 4월 2일(수)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04

법무부는 지난 4월 14일(월)부터 6월 29일(일)까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 추진 3년 차를 맞아 범정부적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5개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 침해, 불법 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을 집중 단속해 범칙금 부과, 강제 퇴거 및 입국 금지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국내 성장 외국인 청소년의 취업·정주 방안 발표

03

법무부는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3년 연장 운영한다. 지난 4월 1일(화)부로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하는 등 국내 성장 기반이 있는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여건에 맞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①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이고, ②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했으며, ③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경우,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체류를 허용한다. 다만, 초·중·고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하면 지역 특화 우수인재(F-2-R) 자격으로 해당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62회 '법의 날' 기념행사 개최

05

법무부는 지난 4월 25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주관으로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제62회 법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법질서 확립,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과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의 기념사가 있었다.

출입국·외국인 정책, 이것이 궁금해요!

e-Arrival Card

전자입국신고

1345

실물 외국인등록증

체류외국인 현황



여행, 유학, 근로 등 다양한 유형의 출입국·외국인 정책을
사례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알아보자.

국내 체류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재한외국인의 한국 생활이 더 편안하고 안정되도록 다양한 행정 및 생활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용 방법: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45

상담 시간: 평일 09:00~22:00

상담 언어: 한국어 포함 20개국 언어* 안내

(18:00 이후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만 안내)

*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몽골어, 인니어, 프랑스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러시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실물 외국인등록증

Q. 올해 1월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모바일 신분증 앱을 스마트폰에 내려받으면 즉시 발급되나요?

A.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외국인등록증을 즉시 발급받으려면 전자칩이 내장된 신형 실물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형 실물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스마트폰으로 신원 확인 QR 코드를 스캔한 후 본인인증을 받아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자칩이 내장된 신형 실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한다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입국

#전자입국신고

#여행사를 통한 가족 여행

#대리인 작성

Q. 지난달 한국으로 여행을 왔는데 전자입국신고서를 미리 작성하니 입국 절차가 간소화돼서 좋았습니다. 다음 달에는 부모님과 함께 여행사 단체 여행을 통해 한국에 방문하려고 하는데, 여행사를 통해 전자입국신고서도 해도 되나요?

A. 여행사가 대신 작성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면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리 신청하더라도 제출 전에 잘못된 정보가 없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탑티어

#우수인재

#F-2 비자

Q. 최근 본격 시행된 탑티어(Top-Tier) 비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탑티어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탑티어 비자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석 엔지니어급 고급인재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여 우수인재 유치 및 정착지원을 뒷받침하는 제도로써, 비자 발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탑티어(Top-Tier) 요건

- **(학력)**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의 석·박사** 학위 취득자로서
- **(경력)**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 **8년 이상 근무 경력** 또는 세계적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 박사 후 **5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자
- **(취업)** 국내 기업과 고용계약을 맺고
- **(소득)**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GNI 3배 이상**(1억4986.5만원)인 자
※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GNI 4배**(1억9982만원) 이상인 경우 학력 또는 경력요건 면제

#출입국 관련 통계

#출입국자 현황

#체류외국인 현황

Q. 업무상 여러 기관의 출입국 관련 통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항목(출입국자 현황, 체류외국인 현황 등)임에도 법무부와 한국관광공사, 행정안전부 등 유관 기관의 통계 수치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A. 통계작성 기관마다 작성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출국자 현황에 대해 법무부는 모든 한국 국적 출국자 수를 산출하나, 한국관광공사는 국민 중 재외국민 출국자를 제외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외국인주민 현황 분류기준'에는 한국 국적 취득자가 포함되나, 법무부의 '지역별 등록외국인 현황' 산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SNS 핫클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식 인스타그램 OPEN!



@immigration_1345



이제 인스타그램에서도
출입국·외국인정책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세요~



The Mobile Residence Card is Here!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안전하고 간편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알아볼까요?



We're Going Mobile: e-Arrival card!



@immigration.kr



출입국신고를 더 빠르고 간편하게
해주는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
알아보기!

공존 라운지 ①

독자 이벤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소식지 <공존> 2025년 봄호를 보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장 재미있는 콘텐츠나 유용한 정보, 아쉬웠던 점
모두 좋습니다. <공존>은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참여 기간 : 2025년 6월 6일(금)까지

참여 방법 : 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스타그램 or 페이스북 or 유튜브
계정 팔로우(구독)!

② 인스타그램 or 페이스북 공존 이벤트 게시물 or 유튜브

<공존> 티저영상 게시물에 '좋아요'

③ 인스타그램 or 페이스북 or 유튜브 채널 공존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벤트 혜택 : 독자 의견을 주신 분 중 5명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 2025년 6월 15일(월) 출입국·외국
인정책본부의 인스타그램 or 페이
스북 or 유튜브 계정에서 당첨 여부
를 확인하세요!



공존 라운지 ②

퀴즈 타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소식지 <공존> 2025년 봄호를 읽고 퀴즈 이벤
트에 참여해 주세요. 이번 호 콘텐츠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Quiz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이 '이'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시설에 취업할 경우 E-7(특정활동)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이' 자격은 무엇일까.

① 공인중개사 ② 요양보호사 ③ 심리상담사 ④ 보건관리사

참여 기간 : 2025년 6월 6일(금)까지

참여 방법 :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해서 <공
존>에 관한 독자 의견과 퀴즈 정답을 남기
면 참여 완료!

정답자 발표 : 2025년 6월 15일(월) 개별 안내



참여하기



2025. 5. 20. (화)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함께 꿈꾸는 미래, 비상하는 대한민국”

